

아동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 유형화 및 관계에 대한 연구

- 잠재계층분석을 적용하여 -⁺

김세원⁺⁺ · 이봉주⁺⁺⁺ · 김현수⁺⁺⁺⁺ · 유조안⁺⁺⁺⁺⁺ · 이상균⁺⁺⁺⁺⁺ · 장화정⁺⁺⁺⁺⁺

[요약]

본 연구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학대재발생 및 유형 간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기록된 2012년-2016년 간 학대사례 26,605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대행위자는 ‘양육문제’ 집단(40.2%), ‘양육문제+스트레스+가정폭력’ 집단(15.6%), ‘가정폭력’ 집단(22.7%), ‘낮은 위험요인’ 집단(21.5%)과 같이 4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학대피해아동은 ‘낮은 문제행동’ 집단(74.3%), ‘외현화 문제’ 집단(8.1%), ‘내재화 문제’ 집단(10.3%), ‘비행+학교부적응’ 집단(7.3%)으로 구분되었다.

이와 같이 구분된 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 집단에 따라 학대 재발생 분포는 다르게 나타났다. 학대행위자가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거나 학대피해아동이 외현화 문제가 있는 경우 학대 재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학대행위자가 ‘양육문제’ 집단이나 ‘양육문제+스트레스+가정폭력’ 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 학대피해아동은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실천적 제안을 하였다.

주제어: 아동학대, 행위자, 학대피해아동, 재발생, 잠재계층분석

※ 논문투고일 - 2019. 10. 01, 심사완료일 - 2019. 11. 29, 게재확정일 - 2019. 11. 29.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HI16C1419).

++ 제1저자(kimsw@cku.ac.kr),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bongjlee@snu.ac.kr),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동저자(khs1004@hanyang.ac.kr), 한양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부교수

+++++ 공동저자(joanyoo@snu.ac.kr),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동저자(sglee@catholic.ac.kr),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동저자(jjang64@hanmail.net),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1. 서론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 정신, 사회, 인지 기능 등 아동발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당하며, 개인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발생을 둘러싼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의 개입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는 아동학대사례는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한 해 동안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606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32,345건으로 무려 1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낮은 편이다. 2018년 아동인구 천 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인 피해아동 발견율은 전국 2.98%로 해외의 9.10%(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발생한다기보다는 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율이 낮은데서 비롯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 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학대피해아동의 82.0%는 원가정 내에서 보호를 받으며 개입이 이루어졌고, 4.1%의 피해아동은 초기 분리조치 되었다 다시 원가정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당수의 학대피해아동은 원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정 내 아동 학대 재발생 여부는 아동보호서비스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처음 아동학대 발생 이후 학대가 재발생하여 다시 신고 접수된 재학대 사례의 비율은 2012년 14.3%, 2013년 14.4%였다가 이후 약간 감소하여 2016년 8.5%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재학대 사례 비율은 다시 증가하여 2018년에는 재학대율이 10.3%였다. 즉 지난 한 해 학대피해아동 열 명 중 한 명이 반복적인 학대로 인해 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아동보호서비스 개입 과정이 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을 포함하여 가족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동보호체계 내로 들어오는 많은 가족들은 “취약한” 상태에 있다(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2009). 2018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가운데 76.9%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을(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아동학대행위자 및 가족의 상당수는 아동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여러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 기술부족과 같은 특징은 아동학대의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Knerr et al., 2013). 부모가 자녀를 문제로 여기거나 좋지 않은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아동발달에 대한 적절한 지식 부족,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 체벌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아동은 학대받기 쉽다(Stith et al., 2009). 이들 부모에 대한 “가해자(perpetrator)”라는 용어는 “취약한 부모” 또는 “학대행위자(maltreaters)”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두 용어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많은 학대 행위는 부모가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이 “해악의 위협”에 처해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Child Family Community Australia, 2015).

그러나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은 앞서 언급한 학대행위자의 개인적 특성에만 있지 않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아동학대는 아동의 연령, 까다로운 기질,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 우울과 같은 아동 특성, 가족의 빈곤, 소득, 가족구조, 폐쇄적이고 갈등적인 가정 분위기와 같은 가족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문화, 지역사회 환경, 불충분한 사회 제도, 경제의 흐름과 같은 사회 경제적 특성 또한 학대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2011).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아동의 우울, 신체적 및 정신적 어려움과 같은 특성은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로 설명되고 있기도 하다. 즉 아동학대는 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며, 일부 특성은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학대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는 동일한 세계를 공유하게 되며, 아동학대행위자들은 아동-친부모 위주의 피·가해관계를 보이는 것을(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감안할 때, 학대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 대상의 서비스 제공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57.4%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25.6%, 학대행위자가 아닌 부모 또는 가족 대상 서비스는 17.0%에 불과하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학대행위자 대상 서비스의 내용 또한 전화 상담을 포함한 상담서비스가

6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리치료(9.1%), 가족기능강화(4.1%), 의료지원(0.9%) 등은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학대행위자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학대사례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의 발생이나 재학대 등의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진행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학대행위자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들을 유형화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김기현 외, 2018). McDonald 외(2011)는 지난 15년 간 호주에서 아동 보호에 대해 수행된 1,359편의 연구 논문을 찾았다. 이들 가운데 단지 26편(4.0%)만이 아동 성학대 가해자/범죄자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다른 학대유형의 가해자/범죄자를 설명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또한 연구 가운데 2.4%만이 학대 가정/부모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학대경험 정도를 잠재유형화하고 이들 간 심리적 및 정서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가 많았으며(강지영·장화정, 2018; 김재엽·최권호, 2012; 김세원, 2016; Hazzard et al., 2019; Aebi et al., 2015), 일부 연구에서만 학대로 판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심리, 정서, 행동적 특성을 유형화하여 설명하였다(Matoss et al., 2014; Villodas et al., 2015).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학대행위자나 학대피해아동은 유사한 특징을 지닌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동보호제도 내로 들어온 아동 및 가족은 각기 다른 특징에 따라 다르게 유형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 아동학대 재발생이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의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구분하고, 유형별 학대 재발생의 분포,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 유형간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으로 학대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제공 계획과 개입의 차별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보호체계 내로 들어오는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과 학대피해아동 특성을 유형화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서비스 효과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행위자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학대피해아동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유형은 어떠한가? 셋째,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 유형별 학대 재발생 분포는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학대행위자 유형과 학대피해아동 유형 간 관계는 어떠

한가?

2. 선행연구 고찰

1) 학대행위자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유형화

지금까지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일부 연구에서 학대행위자의 성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좀 더 많았고(Flaherty, 2006; Lucas et al., 2002), 이들 가운데 친부의 비율이 좀 더 높았다(Schnitzer & Ewigman, 2005).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별이 남자보다 여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박은미·이시연, 2007). Hunter와 Price-Robertson(2012)의 연구에서는 학대 위험이 더 높은 가족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학대사례의 32%만이 양부모가족이었고, 34%는 모자가정이었다. 재혼가족은 15%, 부자가정은 3% 정도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대행위는 또한 성격, 가족사, 아동과 양육에 대한 믿음과 신념 등과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아동기 학대경험과 가정폭력, 아동귀인 및 양육행동 경험(유비 외, 2018), 알코올 및 약물중독, 어머니의 출산 시 연령이나 교육수준 등과 같은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zevedo & Maia, 2006).

Yampolskaya 외의 연구(2009)에서는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치명적인 신체폭력 문제가 있었던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과 유형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대행위자를 3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였으며, 각각 건강 문제가 있는 친모,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남성 학대행위자,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학대행위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학대행위자 집단은 건강문제가 있는 친모집단에 비해 치명적인 신체폭력의 가능성이 7배 높았고,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남성 학대행위자 집단은 친모집단에 비해 신체폭력의 가능성이 12배 정도 더 높았다.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건강 문제가 있는 친모집단의 평균 연령은 29.1세였고, 86%가 여성, 65%가 백인이었다. 이들은 모두 가정에서 아동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학대행위자들이 신체 및 정신건강문제, 약물중독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았다. 둘째,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남성 학대행위자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 연령(36.7세)이 좀 더 많았고,

31%만이 친부모였다. 아동과 함께 가정에 사는 경우는 48% 정도였다. 이 집단의 학대 행위자 중 일부는 범죄경력이 있었지만 평균 체포횟수는 0.7회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60% 정도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었다. 셋째,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학대행위자 집단은 남성이 63% 정도였으며, 과반수 이상이 친부모였고 아동과 함께 가정에서 살고 있었다. 이 집단의 거의 모든 학대행위자가 약물중독 문제, 범죄경력(평균 4.5회 체포), 가정폭력 경험이 있었다. 절반 정도의 학대행위자가 청소년기에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또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아동기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18%로 가장 많았다.

Matos 외(2014)는 포르투갈에서 아동보호서비스에 의뢰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학대적인 양육행동을 유형화하였다. 연구결과 이들 가족은 4개 집단으로 유형화되었으며, 각각 ‘방임 가족’, ‘학대 가족’, ‘고위험 아동 가족’, ‘학대피해 청소년 가족’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유형화된 집단의 학대행위자 및 가족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방임가족은 한부모 가구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어머니가 가구주인 경우가 83.6%로 많았다. 이들은 24~34세 사이였고,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절반 정도가 실업상태였다. 다른 집단에 비해 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사용문제, 공격적 행동, 아동기 학대 경험 등이 많았다. 이 집단에 속한 가족들의 91%는 비빈곤 지역으로 대부분 인프라가 갖춰진 안정적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둘째, 학대 가족의 경우, 절반 이상이 핵가족이었으며, 재혼가정이 1/3정도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5~44세였으며, 이들 중 과반수가 아동기에 학대 피해 경험이 있었고, 알코올 중독 및 공격적 행동을 보였다. 이들 가족은 이웃과 갈등이 있고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셋째, 고위험 아동 가족은 절반정도의 가족이 핵가족 형태였으며, 모자가정과 조손가정도 일부 있었다. 이 집단의 가족들은 대부분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웃과의 관계가 불안정했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 청소년 가족은 대부분 핵가족 또는 재혼가족이었으나 1/3 정도는 모자가정이었다. 가족은 심리적 및 정서적 학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강점을 갖고 있었다. 사회적 통합 지수, 실업 및 월 가구 소득 등이 긍정적이었으며, 공격성이나 알코올/약물 중독과 같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Chng 외의 연구(2018)에서는 아동보호제도 내로 들어온 가족을 유형화하였으며, 학대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집단, 높은 수준의 양육문제가 있고 양육자가 자신의 학대 및 방임을 정당화하는 가혹한 양육 집단, 양육자의 약물 중독, 체포 및 수감경험이 있는 높은 범죄 집단, 모든 가족관련 요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낮은 위험요인 집단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낮은 위험요인 집단에 비해 가혹한 양육집단은 학대재발 생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으며, 집단들 간에 아동보호제도 내로 들어오게 되는 연령, 성별구성 및 학대유형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국내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연구의 상당수는 학대로 인한 아동이 겪게 되는 부정적 영향,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또는 개입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기는 하나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 및 유형화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았다. 김기현 외(2018)의 연구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교도소 및 보호관찰소 24개소에서 관리 중이거나 수감 중인 160명의 아동학대행위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아동학대 행위자들은 비학대행위자들에 비해 빈곤, 정신건강, 문제음주, 가정폭력 문제 등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아동학대행위자는 심각한 정신건강 및 행동건강(문제음주), 가정폭력 피·가해 경험과 기초수급 위험성이 높은 남성으로 구성된 집단, 동일한 남성 학대행위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나 다른 특성들의 위험수준이 낮은 집단, 비교적 저연령의 여성 학대행위자 집단 등 총 3개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은 음주문제와 가정폭력 가해 경험은 낮았지만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이 심각한 정도였고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높았다. 이들 세 집단은 양육특성과 어린 시절 학대경험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학대행위자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았고 처벌적인 훈육은 더 많이 사용하나 비처벌적인 훈육의 사용빈도는 낮았다. 이에 비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난 고위험집단은 비처벌적인 훈육을 여성학대행위자 집단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행위자는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하위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학대행위자의 하위유형을 구분하고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2) 학대피해아동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유형화

많은 연구에서 아동학대는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행동적 발달 등 아동기 발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우울, 불안, 위축, 비행, 공격성, 섭식장애, 자살 시도, 학업 문제 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와 정신질환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 학대경험이 있는 성인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실직이나 실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심리·정서적 적응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

선행연구 결과 학대 발생에 취약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특정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났다(Howe, 2005; Meyers et al., 2011). 예를 들어, 아동의 연령은 학대발생과 관련이 있는데 0~5세의 영유아기 아동은 신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사춘기 이전 아동은 성 학대 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나타났다. 빈곤 가정 아동이나 장애와 같이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 또한 신체 학대의 위험이 더 높았다. 성학대에 있어서 학대피해 아동의 성별 차이는 상당히 일관적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여아가 피해 아동이었으며, 남성이 학대행위자였다. 경제적인 위험은 주로 아동방임과 관련이 있었다(Meyers et al., 2011).

학대로 인해 신고된 아동의 특성에 따라 이들을 유형화한 연구에 따르면 학대피해 아동은 가족 특성에 따라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유형별 아동 특성은 다음과 같다(Matoss et al., 2014). 첫 번째 방임가족은 대부분의 아동이 남아였고 평균 연령이 9.21세였다. 40% 정도가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학대 가족의 경우, 아동은 여러 심각한 형태의 학대에 노출되어 있었고, 여아가 과반수이상이었으며 아동의 평균연령은 10.2세였다. 이 집단 내 아동은 건강 및 정신건강 문제가 많았고, 21% 정도는 특수교육이 필요했고, 또래와의 문제, 심리적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고위험 아동 가족은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며, 아동의 연령은 5세 이하가 절반 정도였으며, 평균 연령은 4세였다. 아동은 성인의 공격적 행동, 알코올 문제, 장기적 실업과 같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아동의 1/3 정도가 경증에서 중증의 심리적 문제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 청소년 가족은 어린 청소년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아와 남아의 비율은 비슷했다. 청소년의 나이는 12~15세가 26%, 그 이상이 28%였다.

아동기의 학대경험과 섭식장애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학대경험에 따라 잠재적 유형화를 한 연구결과에서는 아동학대를 받지 않았거나 경미한 집단, 신체학대 집단, 중복학대 집단, 물리적 방임 집단, 성학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

대 경험 집단 가운데 중복학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폭식, 단식/식사 거르기 등이 좀 더 자주 나타났고, 신체 학대 집단의 경우 단식/식사 거르기를 보고하는 가능성이 더 높았다(Hazzard et al., 2019). 구금된 남자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정서, 신체, 성학대 피해경험을 살펴본 결과 학대경험이 경미하거나 없는 집단, 정서 및 신체 학대 집단, 정서, 신체 및 성학대 집단으로 구분되었고 학대경험이 낮거나 없는 집단에 비해 나머지 두 집단은 많은 정신질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 신체 및 성학대를 경험한 집단은 학대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재범 가능성도 높았다. 아동기의 여러 학대피해 경험은 외현화 문제 및 반복적인 범죄행동과 관련이 있었다(Aebi et al., 2015).

학대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아동이 12세가 된 시점에서는 잘 적응하고 있는 집단(30%), 과잉행동/적대적 행동(36%), 공격적/규칙파괴 행동(8%), 반항/기만적 집단(26%)으로 구분되었다. 공격적/규칙파괴 행동 집단은 학교폭력 가해 행동과 타인에게 못되게 구는 행동, 물리적으로 공격, 싸움, 협박 등과 같은 행동을 많이 하는 집단으로 다른 집단과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반항/기만적 집단은 주의력결핍장애와 반항적 행동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만 물리적인 공격 행동과 같은 행동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거나 보통 수준이었다. 최근에 신체학대를 받은 아동은 유치원과 사춘기 이전에 공격적/규칙 파괴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성학대나 방임을 받은 아동은 아동기 중기에 적응을 잘 할 가능성이 낮았다(Villodas et al., 2015).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대경험이 없거나 적은 집단에 비해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정서적 방임과 물리적 방임을 경험한 아동 집단과 신체학대, 정서학대, 정서적 방임과 물리적 방임을 경험한 아동 집단은 위축, 신체 증상, 불안/우울, 주의력 문제, 비행과 공격적 행동 등이 더 많이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중복학대경험을 유형화하거나 아동학대의 특성에 따라 피해아동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아동의 후유증 및 발달특징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아동학대와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윤혜미, 2017)에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불안, 우울, 위축, 공격성, 비행, 문제 행동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는 신체학대에 비해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모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종단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아동의

학대 및 방임 경험에 따라 아동은 학대 위험이 높은 집단, 방임 위험이 높은 집단, 낮은 위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학대 위험이 높은 집단은 다른 아동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았고, 방임 위험이 높은 집단은 사이버공간에서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높은 학대 위험 집단은 낮은 위험 집단에 비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Park and Han, 2019).

아동보호체계에 신고된 학대 사례특성에 따라 피해아동을 잠재적 유형화 분석 결과, 영유아기 아동은 일상적인 저수준 학대, 단발적 방임, 주기적인 저수준 학대, 간헐적 중복학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아동기 피해아동의 경우 일상적 신체학대, 단발적 방임, 주기적 중복학대, 간헐적 중복학대로 구분되었고, 청소년기는 빈번한 신체학대, 간헐적 방임, 주기적 성학대, 간헐적 중복학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강지영·장화정, 2018). 이러한 하위유형은 학대유형, 지속기간 및 빈도, 연령을 이용한 것으로 학대피해아동의 다른 위험요인은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중복학대피해경험 여부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우울불안,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학교환경 인식, 학교폭력이나 행복감 등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한 가지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원, 2016). 중복학대 경험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신체학대와 방임을 모두 경험한 청소년은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이 신체학대만 경험했거나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최권호, 2012). 그러나 이들 연구는 일반아동의 학대경험정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학대로 판정받은 사례와는 특성이 다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보호체계 내로 들어온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을 유형화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의 아동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을 각각 유형화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데이터의 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 관련 정보를 이용하였다.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종 사례를 선택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 중 가장 최신 자료인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의 정보를 이용하였다. 둘째,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사례만을 대상으로 하며, 셋째, 학대피해아동의 연령이 18세 이하인 사례만을 포함하였으며, 동일한 가정 내에서 여러 명의 자녀에게 학대가 발생한 경우, 무작위로 한 명의 아동만을 선택하여 연구에 포함하였다. 넷째, 2012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신고된 동일한 아동에게 여러 번 학대가 재발생하여 학대가 판정된 사례는 아동학대 재발생으로 간주한다. 재발생 관찰 종료 시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였다. 다섯째,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 특성에 따라 유형화된 집단 간에 학대 재발생 여부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최종조치결과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된 사례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리된 최종 연구대상은 총 26,605건이었다.

2) 주요변수

(1) 학대행위자의 특성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에 기록된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변수는 더미변수로 측정되었다. 즉 해당사항이 있을 시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부여하였다. 구체적인 특성으로는 부적절한 양육태도,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성격 및 기질문제,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부부 및 가족갈등, 배우자 폭력, 알코올 남

용이 있었다. 모든 자료는 현장조사 시 상담원에 의해 기록되었다.

(2) 학대피해아동의 특성

학대피해아동의 특성 또한 모두 더미변수로 측정하였으며, 각 변인별로 해당사항이 있을 시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안, 애착문제, 무력감, 우울, 낮은 자존감, 성격 및 기질문제, 주의산만, 과잉행동, 반항·충동·공격성, 도벽, 흡연, 학교부적응, 학습문제, 잦은 결석 및 무단결과, 늦은 귀가 등이 있었다. 아동 특성 또한 현장조사 시 상담원에 의해 기록되었다.

(3) 그 외 변수

첫째, 아동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 특성으로 유형화한 집단별로 학대 재발생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해당 기간 내에 동일 아동에게 첫 번째 학대 판정 이후 학대가 재발생한 것으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학대 행위자 및 아동의 성별은 남자 1, 여자 0으로 구분하였으며, 셋째, 학대행위자와 아동의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넷째, 학대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발생유무로 구분하였으며, 여러 유형의 학대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구분하였다. 다섯째, 가구유형은 한부모 가구는 1, 그 외 가구유형은 0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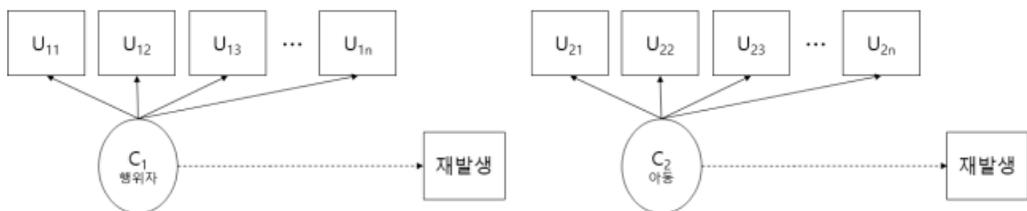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하여 아동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 특성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이분변수로 측정된 변수를 분석할 때 강력한 분석방법으로 알려져 있다(Eid et al., 2003).

잠재계층분석 방법은 대상자 중심 접근 방법(person-centered approach)으로 전체 집단 내에 알려지지 않은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자료를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값을 이용하였다. AIC와 BIC는 값이 작을수록 해당 하위집단

수가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Lo-Mendell-Rubin LRT(LMR) test 값이 유의할 경우 k개의 모형이 k-1개의 모형보다 자료에 더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엔트로피 값은 절대적인 기준값은 없으나 1.0에 가까울수록 집단 수의 결정이 잘 된 것을 의미한다. 엔트로피 값은 잠재계층 수가 늘어날수록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 모형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므로(Collins and Lanza, 2010) 이는 참고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이용하여 아동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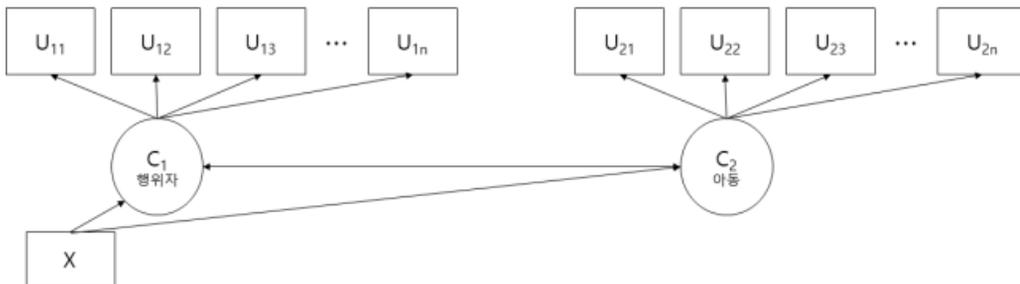
다음으로는 이와 같이 분류된 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의 집단에 따라 아동학대 재발생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대 재발생은 결과변수(distal outcome)로서 이분변수로 측정되었으며, 독립변수인 학대행위자 유형은 잠재변수이다. 이를 위해 Asparouhov와 Muthén(2014)이 제안한 DCAT 보조변수(Auxiliary) 옵션을 이용하였다. 즉 이전 단계에서 분류된 학대행위자의 하위집단은 관찰변수가 아니라 잠재변수로서 결과변수를 예측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이 학대피해아동 특성에 대한 잠재계층분석과 학대 재발생 예측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림 1〉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 잠재계층분석과 학대 재발생

학대행위자 특성과 학대피해아동 특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대행위자 집단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집단의 분포, 학대피해아동 집단에 따른 학대행위자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때 선행연구를 통해 학대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의 잠재계층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3단계 방법은 잠재계층 모형을 추정 후, 잠재계층별로 개인을 분류하고, 잠재계층을 더미변수화해서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이러한 분석방법의 문제점은 분류오류(classification error)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홍세희, 2019). 잠재계층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특정 하위유형에 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관찰변수가 아니라 잠재변수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Asparouhov와 Muthén(2014)이 제안한 Manual 3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1단계에서 독립변수나 종속변수 없이 잠재계층분석을 한 후, 2단계로 각 개인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most likely) 잠재계층을 추정, 3단계에서 분류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 종속변수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홍세희, 2019).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든 분석은 M-plus를 이용하였다.



〈그림 2〉 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 특성에 따른 집단 간 관계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여자가 42.6%, 남자가 57.4%로 남자가 좀 더 많았으며, 연령 분포는 40-49세가 41.6%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30.2%, 50세 이상이 12.5%, 29세 이하가 5.7% 순이었다. 아동의 특성은 여자가 49.7%, 남자가 50.3%로 거의 비슷하였고, 13-18세가 39.2%, 7-12세가 26.7%, 6세 이하가 24.1% 순이었다. 신고된 사례의 학대유형은 정서학대가 64.6%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 56.0%, 방임 29.3%, 성학대 1.9%순이었다. 여러 유형의 학대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는 47.3%였다. 전체 연구대상자 가운데 학대가 재발생한 경우는 8.2%였다. 연구대상자의 가구유형은 한부모 가구가 28.8%, 그 외 가구유형이 70.1%였다.

〈표 1〉 주요변수 빈도분석 결과

(N=26,605)

구분		빈도(%)	
학대행위자 특성	성별	여자	11,325(42.6)
		남자	15,278(57.4)
	연령	29세 이하	1,515(5.7)
		30-39세	8,026(30.2)
		40-49세	11,059(41.6)
50세 이상	6,005(12.5)		
아동 특성	성별	여자	13,214(49.7)
		남자	13,391(50.3)
	연령	6세 이하	6,418(24.1)
		7-12세	9,767(36.7)
13-18세	10,420(39.2)		
학대 특성	학대유형	신체학대	14,905(56.0)
		정서학대	17,193(64.6)
		성학대	515(1.9)
		방임	7,796(29.3)
	중복학대	중복학대 해당	12,593(47.3)
		중복학대 아님	14,012(52.7)
	재학대	재발생 해당	2,189(8.2)
재발생 아님		24,416(91.8)	
가족 특성	한부모 가구	한부모 가구	7,665(28.8)
		그 외 가구 유형	18,656(70.1)

2) 학대행위자 특성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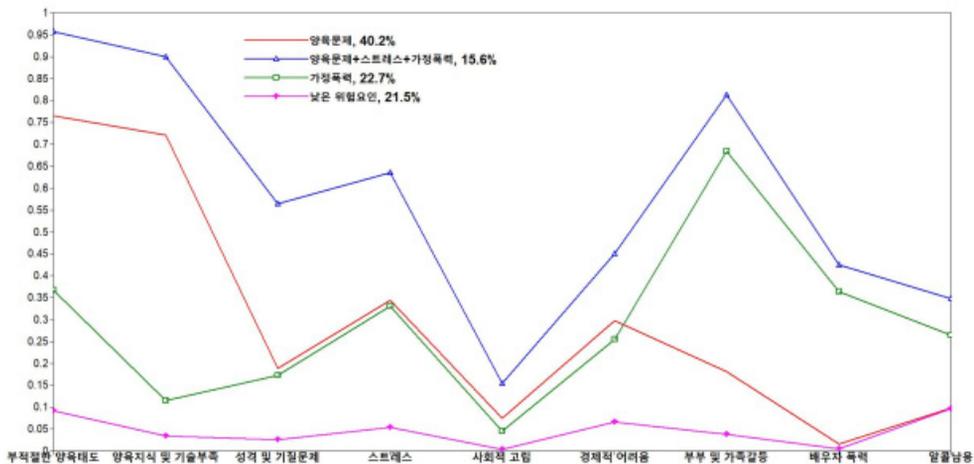
아동학대 26,605건의 사례 가운데 학대행위자 특성이 모두 결측값으로 나타난 사례는 832건이었으며, 학대행위자 유형 분석에서는 이들 사례를 제외한 총 25,773건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학대행위자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했으며, 하위 집단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AIC, BIC, LMR 값 등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을 하나씩 증가시킬 때마다 AIC와 BIC값은 점점 감소하나 LMR 값은 5개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대행위자 특성은 4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개 집단 모형에서 엔트로피 값은 0.62였으며, 엔트로피 값이 0.6일 때 보통 수준의 분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Clark & Muthén, 2009).

〈표 2〉 학대행위자 특성 잠재계층분석결과

하위유형 수	AIC	BIC	LMR	엔트로피
1	251912.40	251985.81	—	—
2	240967.71	241122.69	10964.69**	0.59
3	237377.45	237614.01	3610.26**	0.61
4	235380.27	235698.40	2017.18**	0.62
5	234417.56	234817.25	982.72	0.60

*p<.05, **p<.01

4개 집단으로 유형화된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대한 항목별 확률을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은 전체 학대행위자 가운데 40.2%가 해당하였으며, 여러 집단 가운데 가장 큰 집단이었다. 다른 항목에 비해 부적절한 양육태도,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집단은 ‘양육문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 학대행위자 가운데 15.6%가 해당하였으며, 부적절한 양육태도,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스트레스, 부부 및 가정폭력, 배우자 폭력 문제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양육문제+스트레스+가정폭력’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의 크기는 가장 작았지만 학대행위자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여러 요인에 비해 알코올문제가 있을 절대적인 가능성은 높지 않았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알코올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세 번째



〈그림 3〉 학대행위자 특성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화

집단은 전체 학대행위자 가운데 22.7%가 속하였으며, 다른 요인에 비해 부부 및 가족 갈등과 배우자 폭력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집단은 ‘가정폭력’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집단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학대행위자가 알코올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 집단은 전체 학대행위자 가운데 21.5%가 속하였으며, 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해 해당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0.1 이하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낮은 위험요인’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학대행위자 잠재계층과 학대행위자의 성별,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Manual 3단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낮은 위험요인’ 집단에 비해 학대행위자가 남성인 경우 ‘양육+스트레스+가정폭력’ 집단과 ‘가정폭력’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학대행위자가 여성인 경우는 ‘낮은 위험요인’ 집단에 비해 ‘양육문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낮은 위험요인’ 집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정폭력’ 집단, ‘양육문제’ 집단, ‘가정폭력’ 집단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3〉 학대행위자 집단과 인적 요인(기준집단=낮은 위험요인 집단)

(N=25,773)

	양육+스트레스+가정폭력 (15.6%)		양육문제 (40.2%)		가정폭력 (22.7%)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성별(남=1)	0.431**	0.064	-0.419**	0.053	0.253**	0.063
행위자연령	-0.012**	0.004	-0.014**	0.004	-0.012**	0.004
상수항	-0.041	0.160	1.496**	0.141	0.446**	0.004

*p<.05, **p<.01

이와 같이 분류된 학대행위자 집단에 따라 학대 재발생 가능성이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살펴보았으며, M-plus에서 DCAT 분석 시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Lanza et al., 2013) 다른 변수는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대행위자가 ‘양육+스트레스+가정폭력’ 집단에 속한 경우 학대 재발생 가능성이 0.115로 가장 높았으며, 이 집단의 학대 재발생 가능성은 2배에 가까웠다. ‘낮은 위험요인’ 집단은 학대 재발생 가능성이 0.065으로 가장 낮았다. 학대행위자 집단별 학대 재발생 가능성 분포에 대해 카이제곱 분석한 결과 $\chi^2=53.205(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학대행위자 집단별 학대 재발생 가능성

집단	확률	표준오차	Odds ratio	χ^2 test
양육문제	재발생 없음	0.916	0.004	1.000
	재발생	0.084	0.004	1.319
양육+스트레스+가정폭력	재발생 없음	0.885	0.007	1.000
	재발생	0.115	0.007	1.868
가정폭력	재발생 없음	0.928	0.005	1.000
	재발생	0.072	0.005	1.116
낮은 위험요인	재발생 없음	0.935	0.004	1.000
	재발생	0.065	0.004	1.000

*p<.05, **p<.01

3) 학대피해아동 특성 유형화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을 측정된 모든 항목을 투입하여 잠재계층분석을 하였으며, 총 26,605건의 학대사례 가운데 학대피해아동 특성을 측정된 문항에 모두 무응답한 64건의 사례는 제외하고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의 수가 증가할 때마다 AIC와 BIC의 값은 감소하며 LMR 검증 값은 집단의 수가 6개인 경우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 특성은 5개 집단으로 분류가 가능하나, 5개로 분류했을 때 가장 크기가 가장 집단에 포함되는 응답자의 비율이 2.3% 정도로 매우 작았다. 1) 잠재계층분석에서는 가장 적은 수의 잠재계층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우연히 발생한 잠재계층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Berlin, Williams, & Parra, 2014). 잠재계층 분석에서는 통상적으로 작은 집단의 크기가 5% 이상일 것을 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대피해아동 특성에 대한 집단을 4개로 분류하는 것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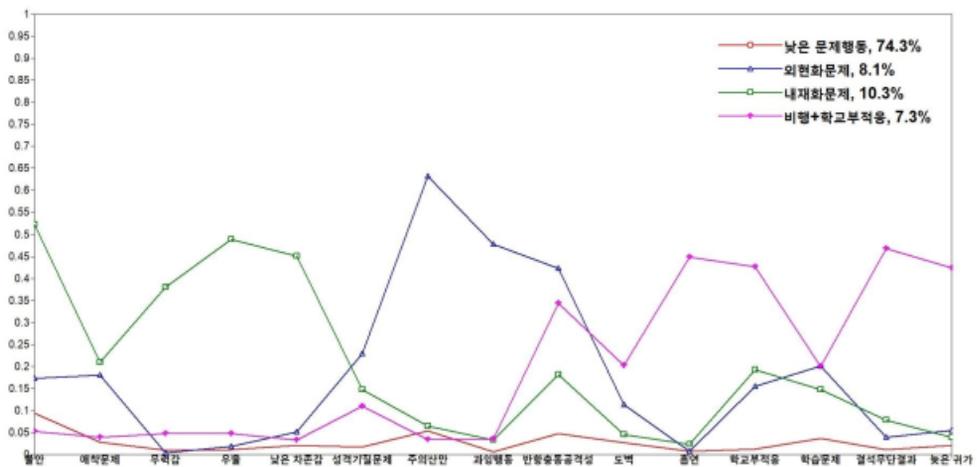
〈표 5〉 학대피해아동 특성 잠재계층분석결과

하위유형 수	AIC	BIC	LMR	엔트로피
1	197051.98	197174.77	-	-
2	185935.46	186189.24	11148.51**	0.68
3	181928.02	182312.78	4039.44**	0.75
4	179000.37	179516.11	2959.65**	0.80
5	178253.19	178899.92	779.18**	0.75
6	177724.18	178501.89	561.01	0.74

*p<.05, **p<.01

1) 5개 집단으로 분류했을 시 class1(67.0%), class2(14.2%), class3(8.8%), class4(7.7%), class5(2.3%)로 구분되었음.

학대피해아동 특성에 따른 4개 집단에 대한 문항별 응답 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은 모든 항목에 대해 해당 가능성이 0.1 이하로 낮았다. 전체 아동 가운데 이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은 74.3%로 가장 높았다. 이 집단은 ‘낮은 문제행동’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 아동 중 8.1%가 속하였으며, 주의 산만, 과잉행동, 반항·충동·공격성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집단은 ‘외현화 문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전체 아동 중 10.3%가 해당하였으며, 불안, 무력감,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내재화문제 및 정서문제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 집단은 ‘내재화 문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집단은 전체 아동의 7.3%가 속해 가장 크기가 작았으며, 흡연, 학교부적응, 잦은 결석 및 무단결과 등의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 집단은 ‘비행+학교부적응’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4〉 학대피해아동 특성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화

학대피해아동 특성에 따라 구분된 4개 집단과 아동의 성별 및 연령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이 남자인 경우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비해 ‘외현화 문제’ 집단과 ‘비행+학교부적응’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여자인 경우 ‘내재화 문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비해 ‘외현화 문제’ 집단, ‘내재화 문제’ 집단과 ‘비행+학교부적응’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모두 증가하였다.

〈표 6〉 학대피해아동 집단과 인적 요인 (기준집단=낮은 문제행동 집단)

(N=26,541)

	외현화 문제 (8.1%)		내재화 문제 (10.3%)		비행+학교부적응 (7.3%)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성별(남=1)	1.158**	0.077	-0.308**	0.059	0.184**	0.069
아동연령	0.018**	0.006	0.214**	0.007	0.410**	0.011
상수항	-3.064**	0.086	-4.105**	0.091	-7.244**	0.156

*p<.05, **p<.01

이와 같이 분류된 학대피해아동 집단에 따라 학대 재발생 가능성이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현화 문제’ 집단의 학대 재발생 가능성이 0.13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비행+학교부적응 집단이 0.058로 학대 재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낮은 문제행동’ 집단의 재발생 가능성도 1.4배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피해아동 외에 다른 위험요인에 대한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대피해아동 집단별 학대 재발생 가능성 분포의 차이에 대해 카이제곱 분석한 결과 $\chi^2=42.876(p<.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학대피해아동 특성 하위집단 유형별로 학대 재발생에 차이가 있었다.

〈표 7〉 학대피해아동 집단별 학대 재발생 가능성

집단	확률	표준오차	Odds ratio	χ^2 test
낮은 문제행동	재발생 없음	0.920	0.002	1.000
	재발생	0.080	0.002	1.420
외현화 문제	재발생 없음	0.886	0.009	1.000
	재발생	0.134	0.009	2.522
내재화 문제	재발생 없음	0.923	0.006	1.000
	재발생	0.077	0.006	1.360
비행+학교부적응	재발생 없음	0.942	0.007	1.000
	재발생	0.058	0.007	1.000

*p<.05, **p<.01

4) 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 유형 간 관계

학대행위자 특성 집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집단이 어떻게 분류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서 분석에서 각 집단별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학대행위자의 성별 및 연령, 아동의 성별 및 연령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학대행위자 집단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집단 분포를 살펴보았다. 학대행위자가 가정폭력 집단에 속한 경우 학대피해아동이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분류되는 경우가 0.837로 가장 많았고, ‘내재화 문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0.078, ‘외현화 문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0.036, ‘비행+학교부적응’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0.049였다. 둘째, 학대행위자가 ‘양육+스트레스+가정폭력’ 집단에 속한 경우 아동은 ‘낮은 문제행동’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0.546이었고, ‘내재화 문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247, ‘외현화 문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0.132, ‘비행+학교부적응’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0.075였다. 셋째, 학대행위자가 양육문제 집단에 속한 경우, 아동은 ‘낮은 문제행동’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0.650이었고, ‘외현화 문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0.127, ‘내재화 문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115, ‘비행+학교부적응’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0.109였다. 넷째, 학대행위자가 ‘낮은 위험요인’ 집단에 속한 경우, 아동은 ‘낮은 문제행동’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0.932, ‘외현화 문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0.016, ‘내재화 문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009, ‘비행+학교부적응’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0.043이었다.

학대행위자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던 학대피해아동은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학대행위자가 복합적인 위험요인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학대피해아동 또한 내재화 문제나 외현화 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학대행위자가 양육문제만 있는 경우 학대피해아동은 다른 집단에 비해 ‘비행+학교부적응’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다.

〈표 8〉 학대행위자 집단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집단 분류

		학대피해아동			
		낮은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	비행+학교부적응
행위자	가정폭력	0.837	0.036	0.078	0.049
	양육+스트레스+가정폭력	0.546	0.132	0.247	0.075
	양육문제	0.650	0.127	0.115	0.109
	낮은 위험요인	0.932	0.016	0.009	0.043

다음에서는 학대피해아동 집단 분류에 따라 학대행위자 집단의 분류 정도를 살펴보았다.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학대행위자의 성별 및 연령, 아동의 성별 및 연령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학대피해아동이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속한 경우, 학대행위자는 ‘양육문제’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0.360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 집단 0.266, ‘낮은 위험요인’ 집단 0.249, ‘양육+스트레스+가정폭력’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0.126이었다. 둘째, 학대피해아동이 ‘외현화 문제’ 집단에 속한 경우, 학대행위자는 ‘양육문제’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0.599로 가장 높았고, ‘양육+스트레스+가정폭력’ 집단 0.256, ‘가정폭력’ 집단 0.104, ‘낮은 위험요인’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0.041이었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이 ‘내재화 문제’ 집단에 속한 경우, 학대행위자는 ‘양육문제’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0.469로 가장 높았고, ‘양육+스트레스+가정폭력’ 집단 0.347, ‘가정폭력’ 집단 0.159, ‘낮은 위험요인’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0.026이었다. 넷째, 학대피해아동이 ‘비행+학교부적응’ 집단에 속한 경우, 학대행위자는 ‘양육문제’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0.615로 가장 높았고, ‘낮은 위험요인’ 집단 0.146, ‘양육+스트레스+가정폭력’ 집단 0.120, ‘가정폭력’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0.119였다.

학대피해아동이 어떤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던 학대행위자 집단에서 양육문제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아동이 별다른 문제행동이 없는 경우도 학대행위자는 가정폭력이나 스트레스, 양육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있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시 양육기술과 훈련에 특히 집중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9〉 학대피해아동 집단에 따른 학대행위자 집단 분류

		학대행위자			
		가정폭력	양육+스트레스+가정폭력	양육문제	낮은 위험요인
피해 아동	낮은 문제행동	0.266	0.126	0.360	0.249
	외현화 문제	0.104	0.256	0.599	0.041
	내재화 문제	0.159	0.347	0.469	0.026
	비행+학교부적응	0.119	0.120	0.615	0.146

5. 결론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 아동, 가족 및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아동학대의 재발생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에서 학대행위자 대상 서비스는 학대피해아동 대상 서비스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안 개발을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학대나 재학대의 원인과 관련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이들을 유형화하여 설명한 연구는 소수이다. 일부 국내외 연구에서 아동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질적인 하위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의 행위자 및 아동을 분류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잠재계층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대행위자는 특성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양육문제’ 집단으로 전체 학대행위자 가운데 40.2%가 해당하였으며, 부적절한 양육태도,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두 번째 집단은 ‘양육문제+스트레스+가정폭력’ 집단으로 전체 학대행위자 가운데 15.6%가 해당하였으며, 부적절한 양육태도,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스트레스, 부부 및 가정폭력, 배우자 폭력 문제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집단은 ‘가정폭력’ 집단으로 전체 학대행위자 가운데 22.7%가 속하였으며, 다른 요인에 비해 부부 및 가족 갈등과 배우자 폭력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학대행위자 유형 중 가정폭력 문제가 있는 집단은 다른 위험요인에 비해 다소 낮기는 하였지만 알코올 문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집단은 ‘낮은 위험요인’ 집단으로 전체 학대행위자 가운데 21.5%가 속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위험요인 수준이 낮았다.

학대행위자가 남자인 경우 낮은 위험요인 집단에 비해 ‘양육문제+스트레스+가정폭력’ 집단과 ‘가정폭력’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여자인 경우 양육문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낮은 위험요인 집단보다 다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학대행위자가 ‘양육문제+스트레스+가정폭력’ 집단에 속할 경우 ‘낮은 위험요인’ 집단에 비해 아동학대가 재발생할 가능성이 2배 정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행위자 특성에 따라 학대 재발생의 위험이 차이가 있고, 또한 행위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위험요인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개입 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도 학대행위자 집단은 특성에 따라 여러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연구의 결과도 선행연구결과와 일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Yampolskaya 외(2009)의 연구나 Chng 외(2018)의 연구에서도 학대행위자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학대행위자 집단이나,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남성 학대행위자 집단, 가혹한 양육 집단 등과 같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김기현 외(2018)의 연구에서도 학대행위자 집단 중 일부는 위험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거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들 간 다소 유형화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의 특성의 차이나 국가 간 차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학대피해아동의 경우도 4개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는데, 첫째, ‘낮은 문제행동’ 집단으로 전체 아동 가운데 74.3%가 이 집단에 속했다. 둘째, ‘외현화 문제’ 집단으로 전체 아동 중 8.1%가 속하였으며, 주의산만, 과잉행동, 반항·충동·공격성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내재화 문제’ 집단으로 전체 아동 중 10.3%가 해당하였으며, 불안, 무력감,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내재화문제 및 정서문제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넷째, ‘비행+학교부적응’ 집단으로 전체 아동의 7.3%가 속해 가장 크기가 작았으며, 흡연, 학교부적응, 잦은 결석 및 무단결과 등의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학대피해아동이 남자인 경우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비해 ‘외현화 문제 집단’과 ‘비행+학교부적응’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여자인 경우 ‘내재화 문제’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아동이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비해 나머지 3개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학대피해아동이 ‘외현화 문제’ 집단에 속할 경우 아동학대가 재발생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속한 경우의 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라 개입이 달라야 하며, 또한 학대행위자를 포함한 다른 체계에서의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학대 재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대유형에 따라 아동발달결과 간의 차이를 살펴 보거나, 종단적으로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외국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Matos 외(2014)의 연구에서 아동은 학교관련 문제가 있는 집단,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문제가 많은 집단, 경증에서 중증의 심리적 문제를 보이는 집단, 청소년 피해 집단 등과 같이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illodas 외(2015)의 연구에서는 잘 적응하고 있는 집단(30%),

과잉행동/적대적 행동(36%), 공격적/규칙과괴 행동(8%), 반항/기만적 집단(26%)으로 구분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학대피해아동의 특징에 따라 아동이 다르게 구분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집단 구분은 아동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특성 및 학대피해아동 특성에 따라 잠재적으로 분류된 집단 간에 학대 재발생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이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학대행위자 특성별 집단 가운데 ‘양육문제+스트레스+가정폭력’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학대 재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낮은 위험요인’ 집단에 비해 학대 재발생이 2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외현화 문제가 있는 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학대 재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비행+학교부적응 문제가 있는 집단에 비해서는 재학대 가능성이 2.5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반복적인 학대 발생 위험이 있는 고위험집단을 구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개입 및 사후 관리 등에 있어 특히 주목해야 하는 가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은 그 특성에 따라 여러 이질적인 하위집단으로 구분이 될 수 있었고, 학대행위자 집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집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분석한 결과, 학대행위자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던 학대피해아동은 낮은 위험요인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학대행위자가 양육문제, 스트레스, 가정폭력 등과 같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학대피해아동은 내재화 문제나 외현화 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학대피해아동 집단에 따라 학대행위자 집단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학대피해아동이 어떤 유형에 속해 있던 학대행위자 집단 가운데 양육문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학대피해아동이 외현화 문제 집단이나 비행+학교부적응 집단에 속한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행위자가 양육문제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보호체계 내로 들어온 학대행위자는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특히 학대행위자들이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거나 양육지식 부족이나 부적절한 양육태도 등과 같이 양육문제가 있을 경우 아동학대는 재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재발생은 비효과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로 인한 결과이며, 아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아동보호기관이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Fluke et al., 2008). 따라서 아동보호서비스는 고위험학

대행위자와 양육문제 집단과 같이 보다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을 타겟팅하고 이들을 조기에 파악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의 전화상담 위주의 상담프로그램만으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이 충분하지 못하며,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통해 학대행위자 대상 프로그램의 양적 및 질적 확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교육이나 양육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대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양육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강점 기반 접근을 제공한다(Chen & Chan, 2016). 어떤 위험요인들은 쉽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강점관점에 근거하여 양육기술이나 민감성 증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Chen & Chan, 2016). 적어도 아동보호체계 내로 들어온 학대행위자만이라도 필수적으로 부모교육 및 양육기술훈련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의 상당수는 문제행동 수준이 낮았지만 1/3 정도는 정서문제나 공격성, 행동문제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제도 내에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위험 사정도구는 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위험요인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상담원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적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심각한 사례가 주로 신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낮음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는 많은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정보는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해 잠재계층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하위집단을 구분하고 이들 집단과 학대 재발생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동학대 재발생은 학대행위자 및 아동 특성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으며, 학대 재발생까지의 시간이 중요한 정보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분석방법의 제한점으로 인해 이러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지 못 하였다. 추후 다른 연구방법 등의 이용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강지영 · 장화정, 2018, “아동학대 세부특성에 따른 피해아동의 하위집단 분류와 문제행동 비교”, 『한국아동복지학』, 62: 61-91.
- 김기현 · 유비 · 손예진 · 김경희, 2018, “아동학대행위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유형화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2: 207-243.
- 김세원, 2016, “아동의 중복지대 피해 경험과 부모 및 가족 특성에 대한 연구”, 『아동과 권리』, 20(4): 583-608.
- 김재엽 · 최권호, 2012, “중복지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신체학대와 방임의 중복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193-213.
- 박은미 · 이시연, 2007,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인터넷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8(1): 299-316.
- 보건복지부 · 숙명여자대학교, 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숙명여자대학교.
-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유 비 · 최진영 · 김기현 · 김경희, 2018, “아동학대행위자의 양육행동 영향요인 연구: 아동 학대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4: 107-143.
- 윤혜미, 2017, “아동학대유형과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복지연구』, 48(1): 173-206.
- 홍세희, 2019, 『잠재계층, 잠재전이, 성장혼합모형』, 서울: 박영사.
- Aebi, M., Linhart, S., Thun-Hohenstein, L., Bessler, C., Steinhausen, H. C., and Plattner, B., 2015, “Detained male adolescent offender’s emotional, physical and sexual maltreatment profiles and their associations to psychiatric disorders and criminal behavi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3: 999-1009.
- Asparouhov, T., and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Azevedo, M., and Maia, A., 2006, *Child abuse*, Lisboa: Climepsi Editores.

- Berlin, K. S., Williams, N. A., and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 2): Longitudinal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 Chen, M., and Chan, K. L., 2016, “Effects of Parenting Programs on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A Meta-Analysis”, *Trauma, Violence, & Abuse*, 17(1): 88-104.
- Child Family Community Australia, 2014,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AIFS), Melbourne.
- Chng, G. S., Li, D., Chu, C. M., Ong, T., and Lim, F., 2018, “Family profiles of maltreated children in Singapore: A latent class analysis”, *Child Abuse & Neglect*, 79: 465-475.
- Clark, S., and Muthén, B., 2009, *Relat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to Variable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 Collins, L. M., and Lanza, S. T., 2009,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2009, Investing in the early years: a national early childhood development strategy. https://www.coag.gov.au/sites/default/files/national_ECD_strategy.pdf.
- Eid, M., Langeheine, R., and Diener, E., 2003, “Comparing typological structures across cultures by multigroup latent class analysis: A primer”,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2): 195-210.
- Flaherty, E. G., 2006, “Analysis of caretaker histories in abuse: comparing initial histories with subsequent confessions”, *Child Abuse & Neglect*, 30(7): 789-798.
- Fluke, J., Shusterman, G., Hollinshead, D., and Yuan, Y. Y., 2008, “Longitudinal analysis of repeated child abuse reporting and victimization: Multistate analysis of associated factors”, *Child Maltreatment*, 13: 76-88.
- Hazzard, V. M., Bauer, K. W., Mukherjee, B., Miller, A. L., and Sonnevile, K. R. 2019, “Associations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latent classes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you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Child Abuse and Neglect*, 98: 104-171.
- Howe, D., 2005, *Child abuse and neglect: attachment,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Houndmills: Palgrave Macmillan.
- Hunter, C., and Price-Robertson, R., 2012, *The good practice guide to Child Aware*

- approaches Keeping children safe and well,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4.
- Knerr, W., Gardner, F., and Cluver, L., 2013, “Improving positive parenting skills and reducing harsh and abusive parenting in low – and middle-income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Prevention Science*, 14(4): 352-363.
- Lanza, S. T., Tan, X., and Bray, B. C., 2013, “Latent Class Analysis With Distal Outcomes: A Flexible Model-Based Approac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1): 1-26.
- Lucas, D., Wezner, K., Milner, J., McCanne, T., Harris, L., and Monroe-Posey, C., et al., 2002, “Victim, perpetrator, family, and incident characteristics of infant and child homicides in the United States Air Force”, *Child Abuse and Neglect*, 26: 167-186.
- Matos, A. L., Moleiro, C., and Dias, J. G., 2014, “Clusters of abusive parenting: a latent class analysis of families referred to Child Protective Services in Portugal”, *Child Abuse and Neglect*, 38(12): 2053-2061.
- McDonald, M., Higgins, D., Valentine, K., and Lamont, A., 2011,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Research Audit (1995-2010),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and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available online at www3.aifs.gov.au/cfca/publications/protecting-australias-children-research-audit-1995%E2%80%932010.
- Meyer, J. S., Gunderman, R., Coley, B. D., Bulas, D., Garber, M., Karmazyn, B., Keller, M. S., Kulkarni, A. V., Milla, S. S., Myseros, J. S., Paidas, C., Pizzutillo, P. D., Podberesky, D. J., Prince, J. S., and Ragheb, J., 2011, “ACR Appropriateness Criteria(®) on suspected physical abuse-child”,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8(2): 87-94.
- Park, Jisu and Han, Yoonsun, 2019, “Trajectories of Child Maltreatment and Bullying Experiences in South Korea: Application of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 23rd Annual Confernece – Ending Gender Based, Family and Community Violence.
- Schnitzer, P. G., and Ewigman, B., 2005, “Child deaths resulting from inflicted injuries: household risk factors and perpetrator characteristics”, *Pediatrics*, 116(5): e687-e693.
- Stith, S. M., Liu, T., Davies, L. C., Boykin, E. L., Alder, M. C., Harris, J. M., and Dees, J. E. M. E. G, 2009, “Risk factors in child maltreat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4: 13-29.
- Villodas, M. T., Litrownik, A. J., Thompson, R., Jones, D., Roesch, S. C., Hussey, J. M., and Dubowitz, H., 2012, “Developmental transitions in presentations of externalizing

problems among boys and girls at risk for child maltrea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7: 205-219.

Yampolskaya, S., Greenbaum, P. E., and Berson, H. R., 2009, “Profiles of Child Maltreatment Perpetrators and Risk for Fatal Assault: A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4: 337-348.

Abstract

Profiles of Child Maltreatment Perpetrators and Maltreated Children

- A Latent Class Analysis -⁺

Kim, Se W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Lee, Bong Joo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Hyun Soo

(Hanyang University)

Yoo, Joan P.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Sang Gyu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Jang, Hwa Jung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files of child maltreatment perpetrators and maltreated children who were reported from 2012 to 2016 in the National Child Maltreatment Information System. The number of cases studied was 26,605. Latent class analysis was applied in order to identify distinct abusive parents and maltreated children. The results showed four heterogeneous latent classes of child maltreatment perpetrators: “parenting problems group”(40.2%), “parenting problems+stress+domestic violence group”(15.6%), “domestic violence group”(22.7%), and “low level of risk group”(21.5%). There were four distinct classes of maltreated children: “low level of risk factors group”(74.3%), “external problem group”(8.1%), “internal problem group”(10.3%), and “delinquency+school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HI16C1419).

maladjustment”(7.3%).

The distribution of re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latent classes of child maltreatment perpetrators and maltreated children. If a child maltreatment perpetrator had multiple problems or a child suffering from external problems, the likelihood of recurren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was high. Meanwhile, if a child maltreater belonged to a parenting problem or parenting problems+stress+domestic violence group, the maltreated child was more likely to be classified in an internal or external problem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practical proposal for child protection services was made.

Key Words : child maltreatment, perpetrator, abused children, recurrence, latent class analysis